

# 정정당당 첫 금 황대헌 “아무도 손 못대게 전략 세웠다”

## 쇼트트랙 남자 1500m 1위

### “한국 국가대표로 자부심

### 응원해주신 국민께 감사”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간판’ 황대헌(23·강원도청)이 노골적 편파판정과 흠뻑세를 극복하고 금메달을 일궈냈다.

황대헌의 금빛 레이스는 심판이 개입할 여지 없이 깔끔했다. 그의 말대로 ‘아무도 제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라는 완벽한 승부수가 통한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까지도 “논쟁 없이 진짜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할 정도였다.

황대헌이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9초219의 기록으로 스티븐 뒤부아(캐나다·2분9초254), 세몬 엘리스트라토프(러시아올림픽위원회·2분9초267)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단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이다. 개인으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땀던 첫 올림픽 금메달이다.

그는 레이스 초반 뒤에서 기회를 엿보던 황대헌은 결승선 9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 거점없이 주월, 1위로 올라선 뒤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황대헌은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선보였다. 7일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 두 명을 추월하는 깔끔한 레이스를 펼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을 당했던 그는 이를 만에 보란 듯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충격의 실격’ 이후에도 황대헌은 씩씩하게 훈련에 나섰다. 그는 1,000m 경기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애물이 반드시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벽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의 말을 인용해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언젠가 활짝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조던의 명언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창올림픽 때 (넘어지는) 두 번의 아픔이 있었다. 평창올림픽으로 내 마인드가 달라졌다. 그래서 지난 남자 1,000m (편파 판정의) 아픔을 겪은 뒤에도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창올림픽은 나를 이렇게 성장시킨 대회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다짐대로 최고의 레이스를 펼친 황대헌은 “판정은 심판의 몫이다. (1,000m에서) 깨끗하게 했지만, 깨끗하지 못했으니 그런 판정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한 수 배웠다”며 “더 깔끔하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지 못 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정정당당한 승자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우승 비결이었다.

더불어 국민의 응원도 힘이 됐다고 밝혔다.

메달을 딴 뒤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황대헌은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 운동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다음으로 나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자리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 영광스럽다. 너무나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든든하고 따뜻해 힘을 냈던 것 같다”며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봤는데 따뜻한 말이 정말 많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승자의 여유를 되찾은 황대헌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또 이날 준결승에서 박장혁(스포츠투토)과 경기를 한 뒤 패배를 받은 중국의 린쯔웨이를 향해서도 “린쯔웨이가 (경기를) 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사이다 발언’을 잊지 않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이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쇼트트랙 여자 1000m

### 두번째 금메달 나온다

### 오늘 최민정·이유빈 출전

9일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11일 두 번째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11일 오후 8시(한국시간)부터 중국 베이징의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여자 1,000m 준준결승에는 최민정(성남시청)과 이유빈(연세대)이 출전한다.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 초반인 5일 혼성계주, 7일 여자 500m와 남자 1,000m에서 ‘노메달’에 그쳤으나 9일 열린 남자 1,500m에서 황대헌(강원도청)이 첫 금맥을 쫓았다.

이날 결승까지 펼쳐지는 여자 1,000m에서는 에이스 최민정과 이유빈이 9일 열린 예선을 통과, 준준결승에 올라 있다.

남자 500m 예선과 5,000m 계주 준결승도 이날 열려 한국 선수들이 대회 초반 부진 및 편파 판정 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기대된다.

스켈레톤에서는 윤성빈(강원도청)과 정승기(가톨릭관동대)가 3, 4차 레이스를 벌인다.

이날 경기로 메달 주인공이 정해지는 가운데 2018년 평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과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정승기의 성적에 관심이 쏠린다.

스키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는 ‘스노보드 전설’로 불리는 손 화이트(미국)가 개인 통산 네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 2018년 평창에서 우승한 화이트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예정이라 은퇴 무대를 금빛으로 장식할 태세다. /연합뉴스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이 10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쉐닝 스노 파크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시상대에서 등 뒤로 성조기를 펼쳐 든 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미교포 클로이 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2연패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클로이 김은 10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쉐닝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94.00점을 기록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의 위업을 이뤘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은 이번 클로이 김이 최초다.

남자부에서는 2006년 토리노와 2010년 밴쿠버에서 ‘스노보드 전설’로 불리는 손 화이트(미국)가 2연패를 했다.

화이트는 2018년 평창에 이어 올해 대회에서도 또 2연패를 노린다. 남자 결선은 11일에 열린다.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다.

전날 예선에서 87.75점을 획득, 1위로 결선에

오른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유일한 90점대인 94.00점을 받아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1차 시기 2위는 86.00점을 기록한 도미타 세나(일본)였다.

2차 시기 때는 연기 도중 넘어졌으나 이 종목 결선은 세 차례 시기 가운데 가장 좋은 점수를 자신의 성적으로 삼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 시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클로이 김으로서는 여유가 있었다.

2차 시기에 90.25점을 받은 스페인의 케랄트 카스텔레가 3.75점 차로 추격해온 가운데 시작한 마지막 3차 시기에서 클로이 김은 이미 금메달을 확정된 상태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연기에 나섰다.

클로이 김이 3차 시기 맨 마지막 순서였는데 앞서 연기한 선수들 가운데 아무도 클로이 김의 1차 시기 점수를 넘지 못했다.

클로이 김은 3차 시기에서도 넘어져 2, 3차 시기를 모두 20점대 점수로 마쳤지만 금메달을 가져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연합뉴스

## 윤성빈, 챔피언 타이틀도 아이언맨 헬멧도 다 내려놓았다

### 스켈레톤 1·2차 시기 12위

첫 주행을 마친 ‘아이언맨’ 윤성빈(강원도청)은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윤성빈은 10일 중국 베이징 옌칭의 국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첫날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2분02초43을 기록, 12위에 자리했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뒤 국제대회에서 ‘톱 레벨’의 실력을 유지하던 윤성빈은 정작 올 시즌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윤성빈은 올림픽 전 자신의 메달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발언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

이는 엄살이 아닌, 현실이었다. 윤성빈의 메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1, 2차 시기에서 10위권 밖에 머문 선수가 3, 4차 시기에서 역전을 이뤄내 메달을 따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올 시즌 슬럼프를 겪기 전 윤성빈은 웬만해서는



윤성빈

국제대회에서 스타트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이날 윤성빈은 스타트에서 1차 시기는 6위, 2차에서는 8위에 그쳤다.

윤성빈은 “스타트는 큰 기대를 걸 만큼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주행을 더 신경 쓰려고 했는데 아쉽다. 트랙 밀 구간(중후반부)에서 실수해 감속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윤성빈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는 “베이징에 올 때부터 (챔피언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그랬다는(금메달을 따냈다는) 사실조차 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아이언맨 헬멧도 내려놓은 채 달려야 했다.

윤성빈은 “경기력과는 상관이 없는데, 스턴 것을 못 쓴다고 하니 기분 좋을 수는 없었다. 8년 만에 아이언맨 헬멧을 못 썼다. 어색했다”고 말했다.

윤성빈은 11일 3·4차 시기에 도전한다. 성에 차지 않지만, 가진 실력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어한다. 윤성빈은 “지금 몸 상태가 100%는 아니다”라면서 “내 실력이 지금 몇 퍼센트건,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